

# 한국서 유독 많은 쌍둥이…"산모·태아 건강 위해 줄일 필요"

김영신 기자

입력 2025.12.18. 오전 6:01 수정 2025.12.18. 오전 6:01 기사원문

64

311

요약

| 쌍둥이 임신·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정책 '사후대응' 편중 문제"



신생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국에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계속 늘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높아져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만6천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천461명)로 증가했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392명)에서 3.4%(457명)로 늘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분만 1천건 당 28.8건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HMBD·The Human Multiple Births Database)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HMBD 국가 평균(15.5건)의 거의 2배다.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분만 1천건당 0.67건으로 HMBD 국가 중 가장 높고, 평균(0.2건)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쌍둥이 출산율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계속 증가하는 점이 특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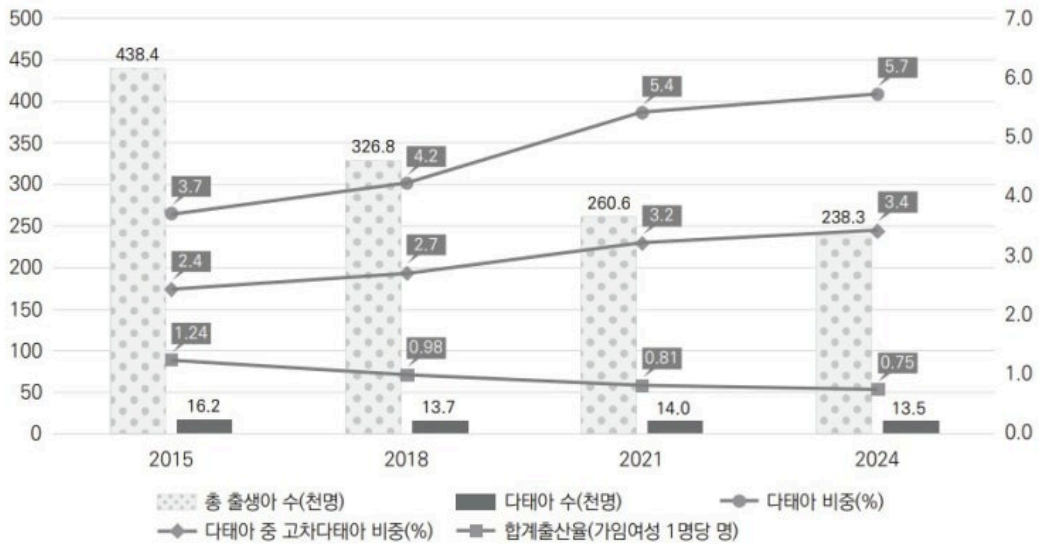
보고서는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의료보조생식기술은 발전하는 가운데, 한 번의 임신·출산을 통해 두 명의 자녀를 동시에 낳고 양육하려는 '출산 편의주의'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2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특히 쌍둥이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35.3세로 단태아 산모(33.6세)보다 높다.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1천38명에서 지난해 16만1천83명으로 7년새 33% 증가하기도 했다.

쌍둥이 임신·출산 지원 정책 역시 이런 변화 추세에 따라 확대됐다.

[그림 1] 한국의 다태아 출산 추이(2015~2024)



주: 다태아 여부 미상 제외.

출처: 1) "인구동향조사: 다태아여부별 출생", 국가통계포털, 2025. 8. 27.,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4&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4&conn_path=I2)

2) "2024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 8. 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이혼등이 지원 대책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태아 출생 축하금, 산후조리경비 등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쌍둥이 관련 정책이 주로 임신 중이나 출산 전후의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했다.

쌍둥이 임신·출산은 산모와 태아에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권장할 일은 아니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2000년대 전후로 많은 국가가 다태아 정책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해 쌍둥이 출산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이 출산 이후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경제적 지원, 출산 이후 일회성 경제적 지원에 편중됐다"며 "쌍둥이 출산은 산모와 태아에 고위험을 수반하는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쌍둥이 임신을 낮추기 위한 임신 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 전 단계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쌍둥이 임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쌍둥이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사후적 정책은 질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쌍둥이 임신·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다태아 출산율을 줄이면서도 전체 출산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shiny@yna.co.kr

김영신(sh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김영신 기자 연합뉴스

"태어나도 3일 못 넘긴됐는데"...심장 몸밖에 나온 신생아 생존기  
국내 성인 3명 중 2명은 "가까운 시일 내 신종 감염병 유행할 듯"

연합뉴스

연합뉴스 구독하고  
메인에서 바로 만나보세요!

언론사홈

## 연합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아웃링크)로 이동합니다.

'라이너 감독 부부 살해' 아들 법원 출두...유무죄 언급 안해  
박나래 전 남친도 경찰 고발돼...매니저 주민번호 등 넘긴 의혹  
폭행사건 무죄 확정 '양은이파' 조양은, 435만원 국가가 보상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15년 구형...검찰 "범행 불량"  
샤이니 키, '주사이모'에게 재택 진료 시인..."방송 하차"

[앱 다운] 빠르고 정확한 연합뉴스를 받아보세요 | 뉴스제보는 연합뉴스 okjebo 톡!

## 연합뉴스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이슈

이슈 3특검 수사

'김건희 부실수사' 중앙지검 증거인멸했  
나...PC 의도적 삭제 흔적(종합)



이슈 한미 관세협상

'트럼프 190조원 상호관세 토해낸다' 베  
팅하는 미국 기업들

